

# 일 지역 대학생의 경구 피임약에 관한 지식과 태도 조사연구

임 현 자 · 조 유 향(초당대학교 간호학과)

## 목 차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영문초록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사회가 고도의 산업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사회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며, 이에 따라 우리의 의식구조에도 큰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급격한 사회 문화의 변화로 성에 대한 정보의 범람과 성개발 풍조로 인한 성의식 및 가치관의 큰 변화는 성윤리와 성도덕에 대한 갈등과 성문란을 야기하며, 이로인해 미혼 여성들의 임신과 인공유산 횡수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문옥륜, 1987).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성문제들 중 미혼모와 사생아의 증가, 인공유산으로 인한 모성의 건강 위해와 임신소모, 그릇된 성도덕이나 성지식과 관련된 성문제와 건강문제 등은 체계적인 교육이나 지도가 부족하거나 결여되었을 때 청소년 시절부터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이다(문인옥, 1997). 청년기는 그 이전의 발달단계를 통해서 성취된 모든 것을 통합하고 또 주체성을 형성하는 단계인데(박애신, 1992), 발달단계에 따른 해결되어야 할 발달과제가 성취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발달단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건전한 성교육을 통하여 모성 보호와 생명존중 의식을 각자에게 심어주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성인들에 의해 희생되는 어린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다.

김영화(1991)는 성경험을 가진 남녀 고등학생 중 64.9%는 피임을 하지 않았고, 남학생의 경우 39.1%, 여학생의 18.9% 만이 피임을 했다고 하여 이로 인한 미혼모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수는 매년 정상적으로 출생하는 아이의 두배에 가까운 실정에 있으며 매해 증가하여 출생 100명당 인공 임신 중절 비율이 1970~1974년 기간에 26.0%이던 것이 1985~1991년에는 76.0%로 급격히 상승하였다(문현상 등, 1993; 홍문식 등, 1994). 이렇듯 인공유산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대상자가 피임에 대한 정확한 지식없이 피임법을 사용하거나 지속적이지 않은 피임사용으로 비계획적인 임신을 증가시켰고, 원하지 않는 임신은 대부분 인공유산으로 종결되는 경향 때문이다(성영자, 1984; 박민향, 1985; 김소야자, 1986; 최동희, 1985; 조문형, 1991; 김진홍, 1996). 여성건강 측면

에서 볼 때 인공유산은 출혈, 부종, 복통 및 요통, 감염, 습관성 유산, 불임 등 심각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야기하며, 심지어는 사망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이다(조문형, 1991; 이홍균과 유태환, 1996). 그러므로 여성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공유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의 발생을 막는 피임이 선행되어야 하고, 가입여성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피임 행위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의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이영희 등, 1997).

피임이란 일종의 수태조절을 위한 수단으로서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지 않도록, 혹은 수정란이 자궁 안에 착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위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게 하는 예방 조치를 말한다. 피임에는 자연 피임법과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영구 피임법 등이 있다. 이상적인 피임법이라면 간단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피임할 수 있고 부작용이 없어야 할 것이다. 많은 피임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으나 아직도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실정이다.

피임법 중의 하나인 경구 피임약은 매우 높은 피임효과를 보이며 비교적 쉽게 여성들에게 받아들여진다. 복합스테로이드제제의 이론적인 실패율은 '0'이며, 실패하는 경우 대부분 복용하는 것을 잊었다든지 하는 복용상의 문제이다. 또 성교전후에 어떤 조작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여성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진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혼모의 대부분이 3~4개월이 넘어서도 임신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할 수 없이 아기를 낳는 사례가 많으며 미혼모의 평균 연령이 20세로 90년도의 22세보다 연소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미혼부의 평균 연령은 24세로 알려져 있다(병원신문, 1993). 이들의 연령이 바로 대학 재학 연령임을 고려해 볼 때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관심과 태도, 성에 관한 고민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성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시기에 올바른 성지식을 갖도록 하여 무지에서 오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박영신, 1988).

이를위해 오래전부터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 지식과 성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Gordon & Grai, 1986; Lester, 1988; 양선희,

1983; 이인규, 1984; 황미혜, 1990; 김영화, 1991; 이명화, 1993; 김신정, 1995; 김용자와 이해경, 1995; 이영희 외, 1997; 남명희, 1999; 이인숙 외, 2000). 그러나, 성교 전후에 어떤 조작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매우 높은 피임 효과를 보이는 경구피임약의 지식과 태도에 대한 실태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통문화에 비추어 성교육의 초점을 혼전 성관계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순결교육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경구피임약은 주로 기혼자만이 선택하는 것으로 여겨져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구 피임약 사용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었다(Stadel, 1981; Swan & Petitti, 1982; Gerstmann, et al., 1991; 최인숙, 1974; 이덕희, 1982; 김상순 외, 1984; 맹광호, 1992). 그러나 경구피임약 사용은 피임의 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한 인공유산을 감소시키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구피임약의 사용을 앞두고 있는 결혼전 세대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구피임약의 지식과 태도에 대한 탐색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성의 건강과 권리가 지켜지기 위한 방법을 도출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피임지도와 더불어 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 지역 대학생의 경구 피임약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피임에 관한 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남·녀 대학생들의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정도를 파악한다.
- 2)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경구 피임약의 지식과 태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일 지역 대학교에 재학하는 남·여 재학생 33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의 내용은 개인적 특성 8문항,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측정도구 32개 문항으로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1)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경구 피임약에 대한 측정도구는 일본 야마구치대학의 Kido 연구팀(2000)이 개발한 척도이다. 측정도구는 원문이 일본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간호학과 교수가 번역하여 간호학과 교수 2인과 남녀 대학생 3인에게 3회에 걸쳐 문항을 이해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지식 측정도구 14문항, 태도 측정도구 18 문항으로 총 3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1점에서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지식 총점 범위는 14~ 70점, 태도 총점 범위는 18~9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과 태도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지식 측정도구의 Chronbach's  $\alpha = .64$ , 태도 측정도구의 Chronbach's  $\alpha = .69$ 였다.

## 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1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일 지역 남·여 대학생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대학생 343명에게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 중 질문지의 응답이 불충분한 6부를 제외하고 337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 방법은 SPSS를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

과 같다.

- 1) 남·여 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2) 남·여 대학생들의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 3) 남·여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 4) 남·여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cy로 산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37)

특 성	구 분	대상자수 (명)	빈도 (%)
성별	남	165	49.0
	여	172	51.0
연령	18~ 20	205	60.8
	21~ 23	59	17.5
	24~ 26	54	16.0
	27~ 29	7	2.1
	30세 이상	12	3.6
결혼	유	10	3.0
	무	303	89.9
	파트너가 있다	24	7.1
학년	1학년	189	56.1
	3학년	148	43.9
종교	유	200	59.3
	무	137	40.7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	1명	9	2.7
	2명	11	3.3
	3명	35	10.2
	4명	127	37.7
	5명	93	27.6
	6명	43	12.8
	7명	15	4.5
	8명 이상	4	1.2

성별은 남학생이 49%(165명), 여학생이 51%(172명)였다. 연령은 전체 337명중 18~20세 사이가 60.8%(205명)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21~23세가

17.5%(59명), 24~26세가 54명(16.0%)였고, 27세 이상이 19명(5.6%)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세였다. 결혼한 학생도 3%(10명)가 있었으며, 파트너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7.1%(24명) 있었다. 학년별 비교로는 성의식과 가치관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1학년과 3학년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1학년이 56.1%(189명), 3학년이 43.9%(148명)였다. 종교 유무는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9.3%(200명),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40.7%(137명)이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수는 4명이 37.7%(127명), 5명이 27.6%(93명), 6명이 12.8%(43명), 3명이 10.2%(35명) 순으로 나타났다.

## 2. 남·여 대학생의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 1) 지식과 태도에 대한 평균 점수 비교

남·여 대학생의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정도는 <표 2>와 같다.

남학생의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 점수는 평균  $52.6 \pm 7.2$ 였고, 여학생은  $53.9 \pm 5.9$ 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지식 점수가 더 높았다. 태도 점수는 남학생은 평균  $60.0 \pm 10.0$ , 여학생은 평균  $57.4 \pm 7.8$ 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태도 점수가 더 높았다. 지식 측정 항목은 14문항으로 14~70점 범위, 태도 측정 항목은 18문항, 18~90점 범위로, 측정 항목 문항 수가 일정하지 않아서 어느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은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지식 점수 총점은 남학생은 75.1점, 여학생은 77.0점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지식점수가 더 높았다. 태도 점수 총점은 남학생은 66.7점, 여학생은 63.8으로 태도점수 총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두 영역중 여

<표 2> 남·여 대학생의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N=337)

항 목	남(Mn±SD) (100점 환산 점수)	여(Mn±SD) (100점 환산 점수)	범위
지식	$52.6 \pm 7.2$ (75.1점)	$53.9 \pm 5.9$ (77.0점)	14~70
태도	$60.0 \pm 10.0$ (66.7점)	$57.4 \pm 7.8$ (63.8점)	18~90

학생의 지식 점수 총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문항별 지식과 태도 정도

<표 2>에서 지식과 태도에 대한 평균점수를 구하였으나 이 평균 점수를 가지고는 대학생들의 정확한 지식과 태도 정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져 문항별 지식과 태도 정도를 구하였다(<표 3>). 도구는 1점에서 5점까지의 척도로 문항별 지식과 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1점 '아니다'~ 5점 '그렇다'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지식영역에서는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여성에게 효과가 높은 피임방법을 자신이 선택할 권리를 준다(4.5점)'였고, 그 다음은 '학교에서 피임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기 원한다(4.3)', '안전한 피임법을 확보할 권리가 여성에게 인정되었다(4.1)', '피임약 사용에 따라 성감염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4.0)', '경구 피임약에 관한 정보를 알 기회가 없었다(3.9)', '피임약의 복용은 자신의 건강관리를 의식할 기회가 된다(3.9)' 순으로 나타났다.

태도영역에서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것은 귀찮다(4.0)', '피임약 사용에 대해서는 사회의 편견이 있다(3.9)', '피임교육시 유연한 자세가 요구된다(3.8)', '피임약에 관심이 있다(3.8)', '피임약은 성에 대한 남녀평등 의식을 가져다 준다(3.7)' 순으로 나타났다.

## 3. 남·여 대학생의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차이 분석

남·여 대학생의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남학생의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 점수 총점은 평균  $52.6 \pm 7.2$ 였고, 여학생은  $53.9 \pm 5.9$ 로 여학생의 지식 점수가 더 높았으나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 = .080$ ). 태도 점수 총점은 남학생은 평균  $60.0 \pm 10.0$ , 여학생은 평균  $57.4 \pm 7.8$ 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11$ ).

## 4. 대학생의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 태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특성

〈표 3〉 문항별 지식과 태도 정도

영역	문	항	평균
지식	경구피임약에 관한 정보를 알 기회가 없었다.		3.9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3.5
	보건소 등 공적 기관에 상담창구가 필요하다.		3.6
	학교는 성교육에 피임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2
	피임약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싶다.		3.6
	피임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 걱정이 된다.		3.1
	피임약 사용에 따라 성감염증이 만연할 위험성이 있다.		4.0
	학교에서 피임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기를 원한다.		4.3
	피임약은 여성에게 효과가 높은 피임방법을 자신이 선택할 권리를 준다.		4.5
	피임약의 복용은 자신의 건강관리를 의식할 기회가 된다.		3.9
	안전한 피임법을 확보할 권리가 여성에게 인정되었다.		4.1
	피임약의 자유 사용은 피임법을 개방한 것이다.		3.5
	우리나라에서는 피임약 정보를 얻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3.3
	피임약의 처방을 받을 때 불편한 생각을 한다고 여긴다.		3.6
태도	경구 피임약의 자유 사용이 빠르다.		3.2
	서비스측(병원)이 피임약 사용자에게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2.8
	피임약의 종류를 선택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3.1
	병원은 환자를 고려해주지 않는다.		3.2
	피임약 사용에 대해서는 사회의 편견이 있다.		3.9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것은 귀찮다.		4.0
	피임교육 시 유연한 자세가 요구된다.		3.8
	가족과 피임약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3.2
	피임약을 사용하고 싶다(남자는 파트너에게 사용).		3.4
	피임약에 관심이 있다.		3.8
	병원에서는 환자의 성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지 않는다.		3.1
	피임약의 복용은 피임할 것인가 아닌가를 여성 자신이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2.9
	피임약은 여성의 성에 대한 의식개혁을 일으켰다.		2.9
	피임약은 사회에서 성에 대한 남녀평등 의식을 가져다 준다.		3.7
	피임약은 성에 있어서 여성의 존엄을 지킨다.		3.5
	피임약의 자유사용에 따라 피임에 대해 알 권리가 주어졌다.		3.3
	피임약에 관한 문제나 걱정을 이야기할 환경이 아니다.		2.4
피임약은 여성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3.0	

〈표 4〉 남·여 대학생의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

항 목	남		여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식	52.6±7.2		53.9±5.9		-1.76	.080
태도	60.0±10.0		57.4±7.8		2.55	.011

대학생의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태도와 관련된 것은 일반적 제 특성으로 학년, 종교 유무를 살펴보았으

나 유의하게 관련된 변수는 없었다(표 5).

5. 남·여 대학생의 일반적 제 특성과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태도간의 상관관계

남·여 대학생의 일반적 제 특성과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태도간의 상관관계는 〈표 6〉과 같다.

경구피임약 복용을 원하는 나이와 연령과 정 상관관

〈표 5〉 대학생의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태도와 관련된 일반적 제 특성

특 성	구분	실수(%)	지식			태도		
			Mn±SD	t	p	Mn±SD	t	p
학년	1학년	189(56.1)	53.2±8.4	0.12	.884	59.1±9.3	2.96	.089
	3학년	148(43.9)	53.3±7.5			65.3±10.2		
종교	유	200(59.3)	53.6±3.4	0.24	.812	58.9±9.2	0.70	.483
	무	137(40.7)	53.3±6.5			58.2±8.8		

〈표 6〉 남·여 대학생의 일반적 제 특성과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태도간의 상관관계

변 수	가족 수	경구피임약 복용 원하는 나이	연령	지식총점	태도총점
가족 수	1.000	.048	.089	.050	-.004
경구피임약 복용 원하는 나이		1.000	.178(.004)	.088	-.094
연령			1.000	-.046	-.075
지식총점				1.000	.467(.000)
태도총점					1.000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178, p=0.004$ ). 즉 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피임시 경구 피임약의 복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총점은 태도총점과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467, p=.000$ ). 즉 대상자의 지식이 높을수록 경구피임약 사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 IV. 논 의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공유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의 발생을 막는 효과적인 피임이 실행되어야 하고, 가임여성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피임 행위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의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이영희, 유태환, 1996).

김영화(1991)는 성경험을 가진 남녀 고등학생 중 64.9%는 피임을 하지 않았고, 남학생의 경우 39.1%, 여학생의 18.9%만이 피임을 했다고 하여 이로 인한 미혼모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혼모의 대부분이 3~4개월이 넘어서도 임신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할 수 없이 아기를 낳는 사례가 많으며 미혼모의 평균 연령이 20세로 90년도의 22세보다 연소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미혼부의 평균 연령은 24세로 알려져 있다(병원신문, 1993). 이들의 연령이 바로 대학 재학 연령임을 고려해 볼 때 대학생들의 이성애에 대한 관심과 태도, 성에 관한 고민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성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시기에 올바른 성지식을 갖도록 하여 무지에서 오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박

영신, 1988).

이를 위해 오래전부터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지식과 성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Gordon & Grai, 1986; Lester, 1988; 양선희, 1983; 이인규, 1984; 황미혜, 1990; 김영화, 1991; 김신정, 1995; 김용자, 1995; 이영희, 1997; 남명희, 1999; 이인숙 외, 2000). 그러나, 성교 전후에 어떤 조작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매우 높은 피임 효과를 보이는 경구피임약의 지식과 태도에 대한 실태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 비추어 성교육을 통해 혼전 성관계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데 기본을 두고 있으며 경구피임약은 주로 기혼자만이 선택하는 것으로 여겨져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구피임약 사용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었다(Stadel, 1981; Swan & Petitti, 1982; Gerstmann et al., 1991; 최인숙, 1974; 이덕희, 1982; 김상순 외, 1984; 맹광호, 1992). 그러나 경구피임약 사용은 피임의 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지식을 갖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 지역 대학생의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정도와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 태도와 관련있는 일반적 제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 지역 남·여 대학생 33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학생이 49%(165명), 여학생이 51%(172명)이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18~20세가 60.8%, 21~23세가 17.5%였으며, 평균 연령은 21세였다. 학년은 1학년과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두가지로 첫째는,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비교 연구의

일환으로 성의식과 가치관에서 크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1학년과 3학년을 선택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다. 둘째는 우리문화에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때와는 다른 개방문화에 직접 노출되었을 때인 대학교 1학년때와 3학년때 가장 많이 성의식과 가치관에 현저한 변화가 올 수 있는 시기로 여겨졌기 때문에 1학년과 3학년만을 선택 조사하였다. 그러나 경구피임약의 지식, 태도와 학년별 비교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우리 사회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외래문화의 물결과 매스컴의 영향으로 성에 대한 정보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문인옥, 1997).

본 연구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 점수가 더 높았으며, 태도 점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명희(1999)는 일부 대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경험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성지식은 여학생이 더 높았으나 성태도와 성 경험은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 청소년 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남녀의 성차이에서 생기는 호기심을 지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충족시킨 청소년들은 실제 경험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는 요구를 덜 가지게 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은 실제 경험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높다고 하였다(손호은, 1991).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히 남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시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 부분이 더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문항별 지식과 태도 정도를 고찰한 결과 지식영역에서는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여성에게 효과가 높은 피임방법을 자신이 선택할 권리를 준다(4.5점)'였고, 그 다음은 '학교에서 피임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기 원한다(4.3)', '안전한 피임법을 확보할 권리가 여성에게 인정되었다(4.1)', '피임약 사용에 따라 성감염증이 만연할 위험성이 있다(4.0)', '경구피임약에 관한 정보를 알 기회가 없었다(3.9)', '피임약의 복용은 자신의 건강관리를 의식할 기회가 된다(3.9)' 순으로 나타났다.

태도영역에서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것은 귀찮다(4.0)', '피임약 사용에 대해서는 사회의 편견이 있다(3.9)', '피임교육서 유연한 자세가 요구된다(3.8)', '피

임약에 관심이 있다(3.8)', '피임약은 성에 대한 남녀평등 의식을 가져다준다(3.7)'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경구피임약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과 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 태도와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으로 학년, 종교 유무를 살펴보았으나 유의하게 관련된 변수는 없었다. Zotti와 Siegel(1995)은 정확하고 올바른 피임방법의 사용이 여성의 비계획적인 임신을 예방하거나 지속적인 피임법 사용은 인구사회학적, 문화적,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선택적 피임법 사용상의 문제와 같은 많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임신, 피임, 특정 피임 방법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규범적 요소에 의해 피임행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 태도와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본 연구는 한·일간의 비교 연구의 일환으로 일본 Kido 연구팀이 개발한 도구(2000)를 번역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후 그 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반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세부 문항수가 적었기 때문으로 여겨된다.

본 연구에서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제 특성과 경구피임약의 지식, 태도와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경구피임약 복용을 원하는 나이와 연령과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피임시 경구 피임약의 복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들의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총점은 태도 총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의 지식이 높을수록 경구피임약 사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안전한 피임법으로 경구피임약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경구피임약 사용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지역 남·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효과적인 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일 지역에 재학하는 남·여 대학생 337명을 대상으로 하여 2001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는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일본 야마구치 대학의 Kido 연구팀(2000)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번역하여 간호학과 교수 2인과 대학생 3인에게 3회에 걸쳐 타당도를 검증한 후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32개 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를 사용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남·여 대학생의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남학생의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 점수 총점은 평균  $52.6 \pm 7.2$  였고, 여학생은  $53.9 \pm 5.9$ 으로 여학생의 지식점수가 더 높았으나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 = .080$ ). 태도 점수 총점은 남학생은 평균  $60.0 \pm 10.0$ , 여학생은 평균  $57.4 \pm 7.8$ 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태도 점수가 더 높았으며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11$ ).
2. 문항별 평균점수를 고찰한 결과 지식영역에서는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여성에게 효과가 높은 피임방법을 자신이 선택할 권리를 준다(4.5점)' 였고, 그 다음은 '학교에서 피임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기 원한다(4.3)', '안전한 피임법을 확보할 권리가 여성에게 인정되었다(4.1)', '피임약 사용에 따라 성감염증이 만연할 위험성이 있다(4.0)', '경구피임약에 관한 정보를 알 기회가 없었다(3.9)', '피임약의 복용은 자신의 건강관리를 의식할 기회가 된다(3.9)' 순으로 나타났다. 태도영역에서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것은 귀찮다(4.0)', '피임약 사용에 대해서는 사회의 편견이 있다(3.9)', '피임교육시 유연한 자세가 요구된다(3.8)', '피임약에 관심이 있다(3.8)', '피임약은 성에 대한 남녀평등 의식을 가져다 준다(3.7)' 순으로 나타났다.
3. 남·여 대학생의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태도와 관련있는 일반적 제 특성으로 학년, 종교 유무를 살펴보았으나 유의하게 관련된 변수는 없었다.

4. 남·여 대학생의 일반적 제 특성과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태도간의 상관관계는 경구피임약 복용을 원하는 나이와 연령과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178, p = 0.004$ ). 즉 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피임시 경구 피임약의 복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총점은 태도 총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467, p = .000$ ). 즉 대상자의 지식이 높을수록 경구피임약 사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일부 지역 남·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지역적으로 확대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2. 한국과 일본의 비교 연구의 일환으로 1, 3 학년만을 선택조사하였으므로 각 학년별 비교가 필요하다.
3. 한국과 일본의 비교 연구의 일환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종교 유,무만을 비교하였으나 종교간 비교가 필요하다.
4.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대학생의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시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 태도에 대하여 남학생에게는 지식을 여학생에게는 태도에 대한 교육에 좀 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김상순, 정복래, 김연화 (1984). 먹는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는 부인들의 실태. *중앙의학*, 47(5), 301-309.
- 김소야자 (1986). 도시 청소년의 성에 관한 지식과 태도 조사. 연세대학교 간호학 연구소, *간호학 논집*, 9.
- 김신정 (1995). 대구시내 일부 여대생의 성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60(4), 345-353.
- 김영화 (1991). 청소년 성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 김용자, 이해경 (1995). 성교육이 여고생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1), 35-53.



- 김진홍 (1996). 인공유산과 여성 건강. 인공 유산과 여성건강 세미나. 대한 가족 계획 협회. 19-30.
- 남명희 (1999).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경험에 관한 조사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0(1), 239-251.
- 맹광호 (1992). 경구피임약 복용과 여성 유방암 발생과의 관련성 여부. 한국 의학회지, 14(1), 5-10.
- 문옥륜 (1987). 피임에 대한 KAP 및 인공 임신 중절에 관한 실태 조사. 보건학 논집. 40.
- 문인옥 (1997). 일부대학생들의 성의식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4(2), 95-110.
- 문현상, 변용찬, 송위섭, 윤종주, 전학선, 정기원 (1993). 최근의 인구 동향에 관한 종합 분석. 서울: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 박민향 (1985). 인공유산과 피임의 관계에 관한 일 연구: 서산 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 박애신 (1992).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지식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1988). 일부 사범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53(6), 393-413.
- 성영자 (1984). 남녀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과 상관변인에 관한 분석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선희 (1983). 일 도시지역 남녀고등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의 실태와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44(2), 113-123.
- 이덕희 (1982). 경구피임약 복용자의 부작용에 대한 조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명화 (1993). 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 서울 YMCA 청소년 상담실.
- 이인규 (1984). 일부 도시지역 남녀고교생의 성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의학, 47(2), 105-114.
- 이인숙 (1994). 일부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희, 박미라, 송미숙, 유진희, 최난순, 한유미, 황운정 (1997).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7(1), 26-35.
- 이흥균, 유태환 (1996). 인공유산 실태에 관한 연구. 인공 유산과 여성건강 세미나. 대한가족계획협회. 3-16.
- 조문형 (1991). 기혼여성의 인공유산 경험 및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원광대학교 산업대학원 보건학과 석사학위 논문.
- 황미혜 (1990). 일지역 여대생의 가족계획 및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태도 및 지식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55(12), 833-840.
- 홍문식, 이상영, 장영식, 오영희, 계훈방 (1994).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 - Hall.
- Gerstmann, B. B., Piper, J. M., Tomita, D. K. (1991). Oral contraceptive dose and the risk of deep venous thromboembolic disease. Am J Epidemiol, 133, 32-37.
- Gordon, S., & Grai, W. S. (1986). Personal issues in human sexuality, Boston: Allyn & Bacon.
- Katase, K. (2000). Sexual attitude and behavior of contemporary Japanese youth. Journal of Asian Sexology. Asian Federation for Sexology, 2, 119-120.
- Lester, B., & Cox, J. (1988). Involving nurses in public school sex education. Journal of School Health, 58(3), 108-109.
- Levinson, R. A. (1995). Reproductive and contraceptive knowledge, contraceptive self-efficacy and contraceptive., behavior among teenage women. Adolescence, 30(117), 65-85.
- Sawyer, R., Beck, K. H. (1988). Predicting pregnancy and contraceptive usage among college women. Health Education, 19, 42-47.
- Stadel, B. V. (1981). Oral contraceptives and cardiovascular disease. N Engl J Med, 40, 171-184.

• 일 지역 대학생의 경구 피임약에 관한 지식과 태도 조사연구 •

Swan, S. H., Petitti, D. B. (1982). A review of problem of bias confounding in epidemiologic studies of cervical neoplasia and oral contraceptive use. *Jm J Epidemiol*, 115, 10-18.

Zotti, M. E., & Siegel, E. (1995). Preventing unplanned pregnancies among married couples ; Are services for only the wife sufficient?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8, 133-142.

## A Study on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Oral Contraceptives in University Students

**Lim, Hyun Ja · Cho, Yoo Hyang**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oral contraceptives in university students in order to provide better sex education programs and direc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37 university students in M city, during the period from April 1 to April 20, 2001.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SPSS package.

The results from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

1. Oral contraceptives related knowledge marked  $52.6 \pm 7.2$  of male students and  $53.9 \pm 5.9$  of females with a range of 14 to 70. The level of female students' knowledge was higher than that of male's but there is not statistically a significant difference ( $p = .080$ ). Oral contraceptives related attitude marked  $60.0 \pm 10.0$  of male students and  $57.4 \pm 7.8$  of females with a range of 18 to 90. The level of male students' attitude was higher than that of female's and there is statistically a significant difference ( $p = .011$ ).
2. Gener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oral contraceptives review grade and religion but not related variables statistically significant.
3. Wanted age of oral contraceptives taking medicine and age was correlated positively ( $r = .178$ ,  $p = .004$ ).

Total knowledge score of oral contraceptives and total attitude score were correlated positively ( $r = .467$ ,  $p = .000$ ).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Oral contraceptives, Knowledge, Attitude.